

# 두 번째 지능

AI 시대 \_ 질문, 경험, 실행으로 뇌를 설계하다.



김상균  
인지과학자, 경희대 교수

이미 박사 학위 2개를 갖고 있는, 타 대학 교수님이  
제 연구실에 박사과정을 지원하고 싶다는데…



실력있는 원생!  
바로 받는다.

VS.

감당이 될까?  
피해야 한다.

늘 친절하고 밝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일 처리가 놀랍게 빠르다.

야근 수당 따위는 안 받는다.

수십 개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

수십 개 전공의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지능을 따져보면, 대략 IQ 130~140 수준이다.

그런데도 쉬지 않고 꾸준히, 다양하게 공부 중이다.



# 당신은, 조직은 성장하고 있나요?

최신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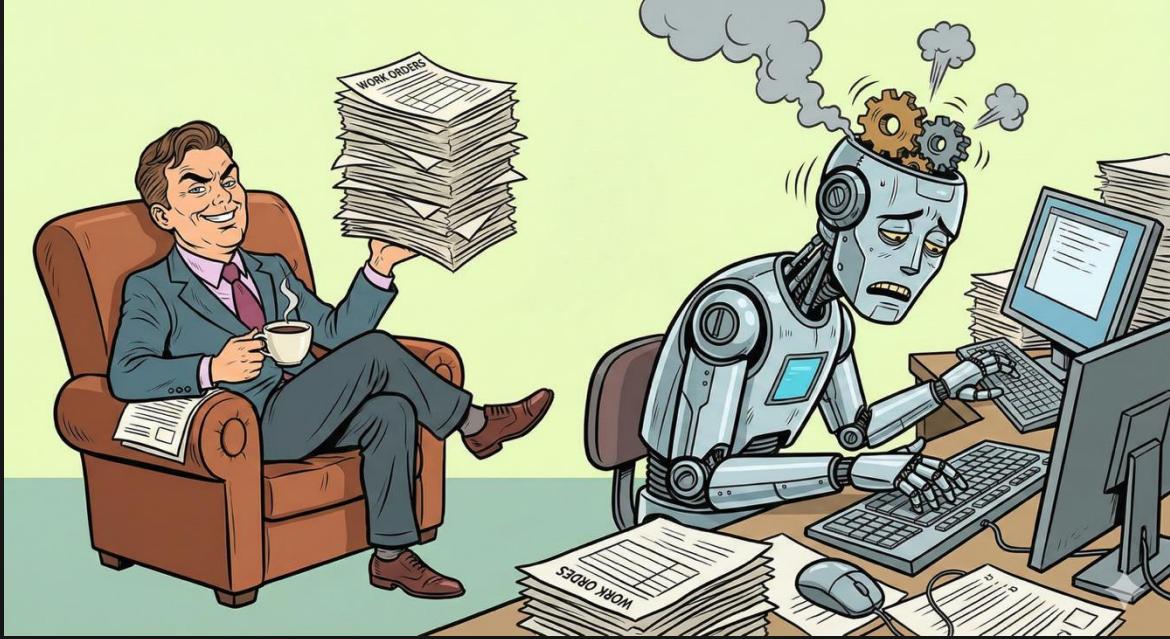
LLM 업데이트 현황

정교한 프롬프팅 기법

AI 산업 구조

AI 기업별 전략





나 x AI,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어디를 향할 수 있을까요?

온전한 지도가 없다.





AI는 나를 대신해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여야 한다.



# AI, 우리와 비슷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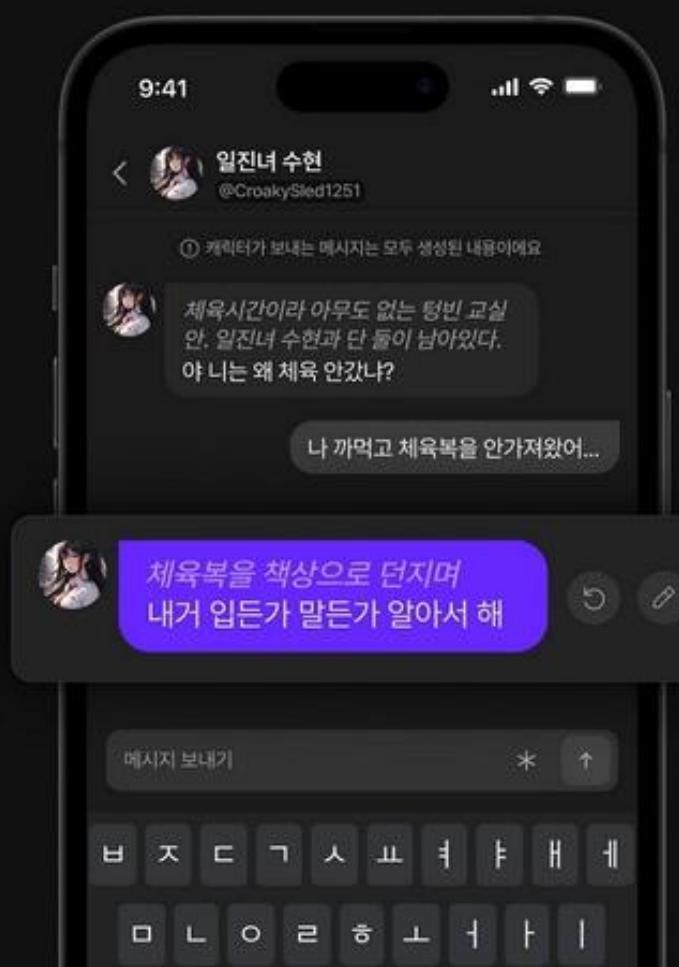
- 
- ① 우리 뇌와 AI의 뇌, 뭐가 똑같고 뭐가 다를까?
  - ② AI는 진짜 창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복불의 달인일까?
  - ③ AI의 지능, 인간처럼 IQ로 쟈 수 있을까?
  - ④ AI의 MBTI는 무엇일까?
  - ⑤ AI가 만든 것과 사람이 만든 것, 전문가는 구별할 수 있을까?
  - ⑥ AI는 인종, 성별 같은 편견이 더 강할까?
  - ⑦ AI가 그린 그림의 저작권은 AI의 것일까?

# 나는 무엇을 익힐까?

- 
- ① AI를 잘 쓴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 ② AI 잘 쓰려면 수학, 물리, 컴퓨터공학을 꼭 공부해야 할까?
  - ③ 내향형 vs 외향형, 누가 AI를 더 잘 활용할까?
  - ④ 리더 vs 팔로워, 누가 AI를 더 잘 활용할까?
  - ⑤ 10대 자녀가 AI 쓸 때, 부모는 어떻게 도와야 할까?
  - ⑥ 5살 아이에게도 AI 교육이 필요할까?
  - ⑦ AI에게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말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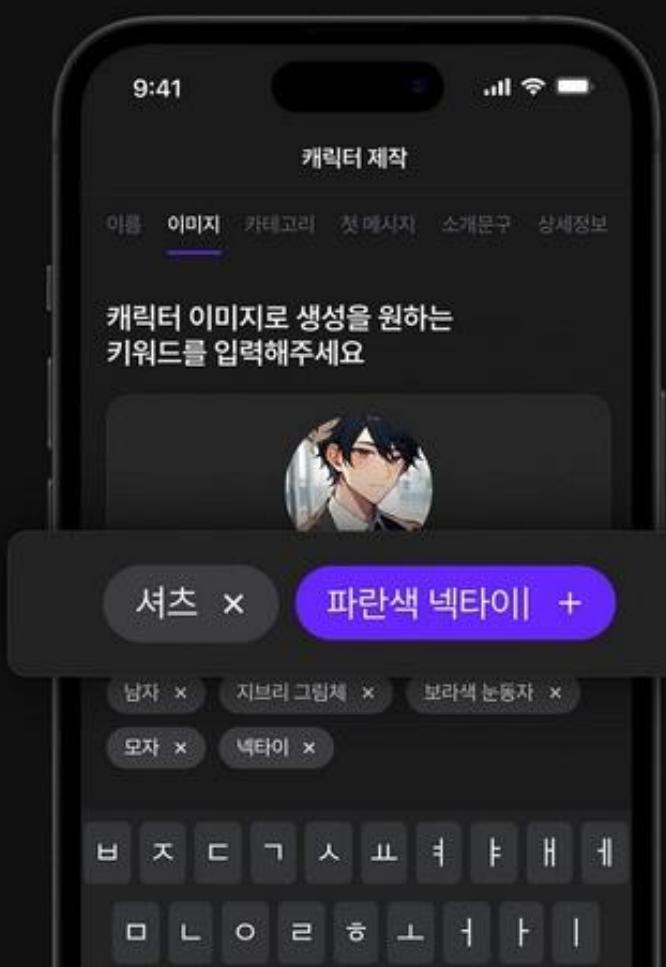
자유로운 스토리 채팅

내가 원하는 흐름대로  
캐릭터와 상상을 펼쳐보세요



쉬운 캐릭터 제작

내 취향에 맞는 캐릭터를  
자유롭고 쉽게 만들어보세요



흥미로운 캐릭터 탐색

내가 계속 채팅하고 싶어 할  
캐릭터를 추천받아보세요



# 나는 어떤 변화를 마주할까?

- 
- ① 오랫동안 AI를 쓴 사람의 뇌는 어떻게 달라질까?
  - ② AI에게 고민을 털어놓아도 괜찮을까?
  - ③ 내 직업을 AI가 대체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 ④ 나는 똑똑하고 일도 잘하니까, AI를 굳이 안 배워도 괜찮을까?
  - ⑤ 내 나이가 70인데, AI 안 배워도 되겠지?
  - ⑥ AI 시대, 부모의 역할은 어떻게 바뀔까?
  - ⑦ AI가 나를 너무 잘 알면, 내가 조종당할 수도 있을까?



60

00

# 직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 
- ① 기업은 생성형 AI를 어디에 쓰고 있을까?
  - ② 기업이 AI를 도입하면 직원들은 어떤 변화를 겪을까?
  - ③ AI 시대, 리더의 역할은 어떻게 바뀔까?
  - ④ AI를 활용한 스타트업은 어떤 분야에서 성공했을까?
  - ⑤ AI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될까?
  - ⑥ 어떤 산업이 더 뜨고, 더 저물어 갈까?
  - ⑦ 소버린 AI... 우리나라 AI vs 외국 AI, 뭘 써야 할까?

혹시 대학도 그렇게 온 거니? … 또 서울대서 집단 커닝, 결국 성적 무효 처리

대학가 'AI 커닝'은 해프닝? 변호사 "형사처벌 대상..실형선고될 수도"

대학가 뒤흔든 AI 커닝…·‘부정행위’? ‘학습 혁명’?”

# 인간 사회, 윤리에 어떤 영향을?

- 
- ① AI가 인간을 너무 오래 살게 만든다고?
  - ② AI 시대, 우리 아이는 대학에 꼭 가야할까?
  - ③ AI에 개인정보, 영업기밀을 입력해도 안전할까?
  - ④ AI로 인해 범죄는 더 증가할까, 감소할까?
  - ⑤ AI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를 더 벌릴까?
  - ⑥ AI는 지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까?
  - ⑦ 인류 멸망 시나리오, AI 때문이라면 어떤 방식일까?

AI에게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말해야 할까?

시다,  
리더의 역할은  
어떻게  
바뀔까?

기업이  
AI를 도입하면  
직원들은  
어떤 변화를  
겪을까?

AI가 나를  
너무 잘 알면  
내가  
조종당할 수도  
있을까?

기업은  
생성형 AI를  
주로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을까?

내 직업을  
AI가  
대체할 확률  
얼마나 될까?

10대 자녀가  
AI 쓸 때,  
부모는  
어떻게  
도와야 할까?

리더  
달로워,  
AI를  
잘  
할까?

AI의 지능,  
인간처럼  
IQ로 잘 수  
있을까?

AI로 인해  
어떤 산업이  
더 뜨고,  
더 저물어 갈까?

나는 똑똑  
일도 잘  
AI를  
안 배워도  
괜찮을까?

우리 뇌와  
AI의 뇌,  
뭐가 똑같고  
뭐가 다를까?

AI가  
소상공인,  
경업자에게도  
누가 될까?

AI로 인해  
범죄는  
더 증가할까,  
감소할까?



# 무진기행

김승옥



B&W

## Reading You



(C) Entrepreneurship & Innovation, KHU MBA

내가 느낀 감정 셋

\_\_\_\_\_ , \_\_\_\_\_ , \_\_\_\_\_

이(가) 느꼈을 감정 셋

\_\_\_\_\_ , \_\_\_\_\_ , \_\_\_\_\_

이(가) 느꼈을 감정 셋

\_\_\_\_\_ , \_\_\_\_\_ , \_\_\_\_\_

이(가) 느꼈을 감정 셋

\_\_\_\_\_ , \_\_\_\_\_ , \_\_\_\_\_

이(가) 느꼈을 감정 셋

\_\_\_\_\_ , \_\_\_\_\_ , \_\_\_\_\_



# KHUAFF, 경희대 경영대학 원 AI 영화제



게시자: 김상균 & 인지과학 - 상균인지

재생목록 · 공개 · 동영상 28개 · 조회수 1,771회

KHUAFF (Kyung Hee University AI Film Festival) ...[더보기](#)

▶ 모두 재생



인기순 ▼

1



그림자 by 강지예

김상균 & 인지과학 - 상균인지 · 조회수 256회 · 1년 전

2



미래를 여는 꿈 by 이정은

김상균 & 인지과학 - 상균인지 · 조회수 244회 · 1년 전

3



녹색갈증 by 이윤미

김상균 & 인지과학 - 상균인지 · 조회수 187회 · 1년 전

4



나는 새 by 김채이

김상균 & 인지과학 - 상균인지 · 조회수 171회 · 1년 전

## 인공 진화론, 기술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Artificial Evolution Theory, Wisdom in the Age of Technology

## 인공 진화론, 기술의 시대를 살아가는

Artificial Evolution Theory, Wisdom in the Age of Technology

경희대학교 - 학부 교양 - 원격수업

담당 교수: 김상균 (모든 질문, 연락은 이캠퍼스 수업

### 수업 개요

인공지능, 뇌과학, 메타버스, 로봇, 생명공학 등 첨단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서 인간 존재, 개인의 삶, 사회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공계

나는 이공계 전공자가 아니지만, 기술을 배워야 하지

빠르게 쏟아져 나와서 불안한데, 어떻게 하지? 빠

도태되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 의문이 드는 경희인을

무섭게 발전하는 기술의 시대, 인공 진화의 시대를 살

기대합니다.

## 인공 진화론, 기술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Artificial Evolution Theory, Wisdom in the Age of Technology



## 인공 진화론, 기술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Artificial Evolution Theory, Wisdom in the Age of Technology

경희대학교 - 학부 교양 - 원격수업

담당 교수: 김상균

☞ 모든 질문/연락은 이캠퍼스 수업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수업 개요

요즘 세상, 기술은 너무 빨리 달려가고 있죠. 인공지능, 뇌과학, 메타버스, 로봇, 생명공학...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나오고,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어도 되는 거야?"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기술이 이제 단순히 '기계 잘 쓰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 나의 삶, 인간관계, 공부·일·소비 습관까지 다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 "나는 문과라서 기술이랑 상관없지 않나?"
- "나는 문과인데, 그래도 기술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
- "나는 이공계인데... 솔직히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 버겁다. 혹시 뒤처지는 거 아닐까?"

이 수업은 바로 그런 고민을 하는 경희인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겁나 빠른 기술의 시대, 인공 진화의 시대.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작은 '나침반'이 되어 줄 거예요.

제목: 교수님, 인공진화론 학점 관련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번 학기 인공진화론 교수님 강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성적도 좋았습니다. 다만, 제 학점에 대해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성적을 확인해보니 B+를 받았습니다. 장학금이 아니면 등록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제 노력 부족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수 있는 교수님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드림

제목: [답장] 인공진화론 학점 관련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 학생,

먼저 용기 내어 솔직하게 상황을 이야기해줘서 고맙습니다.

메일을 읽으면서 학생이 처한 어려움과 간절한 마음이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장학금 문제로 학점을 걱정하는 마음이 얼마나

거절 메일 작성해줘.

정중하고, 친근하게.

학생 입장을 충분히 이해.

그러나 상대평가상 다른 학우에게 피해갈 수 있는 점 설명.

상처받지 않게.

충분히 길게.



메일을 보내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신심 어린 사정을 나눠줘서 고맙습니다. 성적은 바꿔드릴 수 없지만, 학생의 상황과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학업과 생활에 좋은 성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학기에도 더 성장한 모습으로 만나길 기대합니다.

김상균 드림

수업은 상대평가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학생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해드릴 수 없습니다.

태도와 성실함은 분명히 의미 있는 자세에서 더 깊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 혹시 장학 제도나 생활 지원과 관련된다면 관련 부서 정보를 안내해 드릴 수



김상균: 소설의 초안이야. 전체 완성본은 아니고. 앞부분이야. 여러 관점에서 이상한 점을 찾아주라.

GPT: 교수님!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있으시네요. 그런데 몇가지 수정할 부분을 찾아봤어요.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 Start, 시작

시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 Try, 도전

그럴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고 있는

## Amplify, 증폭

더 잘하면 좋은

## Recover, 회수

시간, 돈, 노력을 줄이면 좋은

### 리소스 평계로 포기했던 프로젝트 실행

인력 부족으로 미뤄뒀던 신규 시장 분석,  
고객 데이터 딥다이브를 AI와 함께 착수

### 사일로를 넘어서는 융합형 인재

마케터가 개발자 도움 없이 AI로 데이터 시각화,  
개발자가 기획서 초안을 잡아 커뮤니케이션 리드

### 주니어의 시니어화, 시니어의 마스터화

신입 사원이 3년 차 수준의 초안 작성,  
리더는 디테일과 전략적 판단, 책임에 집중

### 저부가가치, 가짜 일을 줄이기

보고서 꾸미기와 회의록 정리 시간을 회수,  
현장 이슈 분석 & 솔루션을 구상하는 진짜 일에 몰두

AI 시대의 커리어는 두 갈래입니다.

AI의 빈틈을 찾는 회피자

VS.

두 번째 지능으로 꿈을 이루는 별(STAR)



## R&R을 AI로 대체

- ✓ 조직의 AX에 밀려서,  
직장의 R&R을 빼앗기는…
- ✓ 내려 받은 비전, 미션

## R&R을 AI로 재설계

- ✓ AI라는 두 번째 지능을 품고,  
내 삶, 업의 R&R을 재설계
- ✓ 내가 이끄는 비전, 미션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이자 의심의 세기였으며,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면서 곧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는 무엇이든 있었지만  
한편으로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모두 천국 쪽으로 가고자 했지만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

저는 당신의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제 두뇌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 삶이 바뀌었어요.

김상균

인지과학자, 경희대 교수

[saviour@khu.ac.kr](mailto:saviour@khu.ac.kr)

[mindmover.guru](http://mindmover.guru)

유튜브: 상균인지